



Hello! I am Sr. Melanie Di Pietro. I come in two's! Phil, my twin, is a former navy nurse and graduate of Pittsburgh Hospital. Our father Joseph, born in Italy, worked at Walworth and in his barber shop in the evenings and on Saturdays. Our mother, Jessie, born in Greensburg, was a tailor/seamstress at Horne's Department Store. Nancy, my sister, retired as the director of Jeannette Community Home Nursing.

Clarina, ("Tubby") my mentor and role model, taught Western and Asian culture. Tubby made education for the world part of my DNA grounding my interest in Church/State relations articulated in Vatican II and *Deus Caritas Est*.



Entering in 1962, I found the cut off from external events and relationships very difficult. My formative influences were Father Wieksner who brought me books, Father De Andrea who taught us that we follow an adult Christ, Teilhard, and Vatican II.

I taught grade school at Holy Innocents and high school at Sacred Heart and St. Anselm's. While teaching at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 went to law school several nights a week and on Saturdays. After law school, Mother Richard Ann Watson gently suggested that I work with then Father Maida at the diocese, which I resisted. I taught classes in business law at Seton Hill and law at Duquesne University and Seton Hall Law School where I continue to direct the Center for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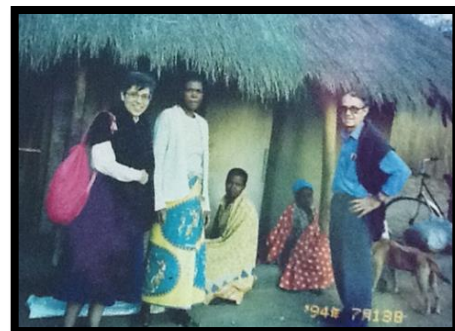


Before the study of canon law, I did not understand the theological distinction between the apostolate entrusted to the religious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work of sisters. My former law firm suggested and supported my study of canon law because it was essential to our legal work representing Catholic hospitals, universities and charities. Through this work, I realized the magnitude and power of the institutional apostolate of American women religious in the US.



While serving on the Legal Commission of Caritas Internationalis in Rome, I met bishops who literally faced bullets and kidnapping to serve their people. This encounter changed my view of the "institutional" Church.

Living with sisters, especially accompanying Sister Mary Louise Lisowski in her work with the poor, Trappist retreats, and Centering prayer, makes community life "a school for mission".





안녕하세요! 멜라니 디 피에트로 수녀(Sr. Melanie Di Pietro)입니다. 저는 쌍둥이에요! 저의 쌍둥이 자매인 필(Phil)은 피츠버그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했고 해군 간호사였어요. 저의 아버지(Joseph)는 이태리 출신으로 월워스(Walworth)에서 근무하면서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는 이발소에서 일하셨고 그린스버그에서 태어난 어머니(Jessie)는 혼스 백화점(Horne's Department Store)에서 재단과 재봉을 하셨어요. 저의 자매 중에 낸시(Nancy)는 제넷 커뮤니티

요양원(Jeannette Community Home Nursing)의 책임자로 은퇴를 했고 저의 멘토이자 롤모델인 클라리나(Clarina)는 서양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가르쳤답니다. 우리는 클라리나를 터비(Tuby)라고도 불러요. 터비는 제가 가진 유전자 중에 세상과 관련된 부분을 가르쳤어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제가 가진 관심은 그 유전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1962년에 수도회에 입회한 후 저는 외부 세상의 일이나 관계와 단절된 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성장하도록 영향을 주셨던 분은 뷁스너 신부님(Father Wiekner)이에요.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읽어볼 책을 주셨고, 드 안드레아 신부님(Father De Andrea)은 저희에게 성인이 된 예수님의 삶과 테야르드 샤르댕,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홀리 이노센트 초등학교, 세크레드 하트 고등학교, 세인트 안셀름 고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에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로스쿨을 다녔어요. 로스쿨을 마친 후에 리차드 앤 와슨 총장 수녀님(Mother Richard Ann Watson)은 저에게 교구에서 마이다 신부님(Father Maida)과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씨튼 힐 대학(Seton Hill)에서 상법을, 듀케인 대학과 씨튼홀 대학(Duquesne University, Seton Hall Law School)에서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씨튼홀 대학의 종교 관련 단체를 위한 법학 센터(Center for Religiously Affiliated Organizations)에서 계속 책임을 맡고 있어요. 교회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수도회에 맡겨진 사도적 활동과 수녀님들의 개인적인 일 사이의 신학적 구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일했던 로펌은 가톨릭 병원과 대학, 자선단체들을 변호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교회법을 공부할 것을 제안하고 지원도 해주었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미국 여자 수도자들의 제도적 사도적 활동의 규모와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국제 까리타스 법률 위원회(Legal Commission of Caritas Internationalis)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말 그대로 눈 앞에 총알이 날아오고 납치당할 위험에 처한 주교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제도적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지요.

수녀님들과 함께 사는 삶,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메리 루이즈 리소우스키(Sister Mary Louise Lisowski)와 함께 하는 일, 그리고 트라피스트 피정, 향심기도 등 이 모든 일은 공동체 생활을 '선교사명을 위한 학교'로 만들어 줍니다.

